

## 다면 그를 섬기라

말씀 : 마태복음 4:1-11

요절 :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 편해지고 더 스마트 해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시험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거센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진정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고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1.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1-4)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시기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오시고(3:16)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라에 마귀의 역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제 자라나고 있는 썩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유혹에 빠뜨리고 철저히 무너지게 하고자 골몰히 시험 문제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배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광야로 이끈 것일까요? 광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을 받고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반여준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을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진 기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의 체험을 했고,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영성을 길렀습니다. 역사적으로 광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빛어지는 기념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장소는 화려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위험의 장소,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 8: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낯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생활을 통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예근성을 뿌리 뽑고자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성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40년간 이어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광야가운데 보내시고 쓰실만한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받고 수많은 일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성과 믿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인 찰스코우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나비가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긴 시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고치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갔다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쓴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 이것은 나비가 꽃을 찾아 이산 저 산으로 날아다닐 행복한 나비로 만들어 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인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어 도착하셨습니다. 마귀와의 대전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전 메시야대관식을 통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더이상 수련같은 것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당장 불어도 금방 이겨버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오셔서 겸손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쓰러질 것 같은데 10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다니, 마치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2절에서는 그냥 40일이라고 하면 될텐데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한달가까이 1일 1식으로 하루에 무려 2끼나 금식한 선우형제님은 얼굴이 훌쭉해졌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빼만 남은 양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금식기도였습니다. 마귀와의 일전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경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과 어려움,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노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기부인을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철저히 신뢰함으로 긍식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월호 유민아빠는 40일간 긍식기도를 했는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긍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긍식기도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40일을 기다린 끝에 철저히 주리신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리고 찾아 왔습니다. 마귀의 첫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것이 시험이 되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에 빠져 임의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진 말들은 모두 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심었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혼자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이며 부추겼습니다. 이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들 자녀들을 친히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그분의 뜻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궁핍한 상황중에서 훈련하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궁핍중에도 환란중에도 그 백성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 백성의 배고픔 어려움을 아시고 먹을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르신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날 연락이 와서 가셨더니 그곳에 어르신 네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700이 넘으신 고령의 할아버지들이 탈북을 하겠다고 하자 “왜 나오시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분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러면 “어르신들의 탈북을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그분은 대뜸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해보겠다고 잠깐만 기다려 주라고 했습니다. 10여분쯤 지나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아까와는 음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 주겠다고 하는데 따라 갈까요”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 둔줄 아느

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일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북한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목사님에게 “천국에서 만나자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싶으시고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국경을 지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간 이 할아버지들이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돈 문제로 시험해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확찐자들이 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여전히 집요하고 치열합니다. 사탄은 좀 더 유명한 맛집에서 조금 더 자주 먹고 싶은 문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잔편치를 날립니다.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평과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는 것보다 세계 종시가 폭락하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만큼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경제 문제 해결을 삶의 첫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편치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갈고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맞받아 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1순위 사업이 경제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경제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강남의 부자가 말했다면, 수많은 악플이 달렸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런 말 하지, 배가 덜 고파서 그래, 좀 더 굶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긍식하신 극한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굶어죽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3절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생활의 의미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에 왔을 때, 양식이 떨어져 막막했습니다. 구원받고 자유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 싶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그리도 궁핍하고 주린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죽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쫓아 안식일에 나아갔을 때에는 양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 안일과 욕심으로 쪼여있던 노예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첫번째 문제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앞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기억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 괴롭고 힘들게 하는 떡문제 앞에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5-7)

5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니 그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시험해 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셨습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신뢰 관계를 끊음으로 사람의 영적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에덴동산을 행복의 동산에서 저주의 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인간불행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창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로마서 8:35절을 보면 혼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장애물이 걷히고 길이 열리고 먹을 것이 주어질 때 그들은 “alleluia”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길이 험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차라리 노예백성으로 살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는 도발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은 대개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존재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심지어 가진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 가지를 주시고 한 가지를 안주셨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가지가 없고 한 가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몇가지를 받았는가가 신뢰의 절대근거는 아닙니다. 롬 8:32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양들이 떠나고 병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내적인 마귀의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그것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믿음을 마침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3. 만을 섬겨야 합니다.(8-11)

8, 9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2차전에서도 패배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세상 영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그 황제가 가진 화려한 영광이 펼쳐졌을까요? 한나라의 대통령의 영광도 대단합니다. 또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영광만 되어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금뱃지를 달고자 합니다. 저는 센타 앞에 있는 건물 하나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여주어도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내게 옆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8:18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심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는가? 네게 절만 하면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딱 한번 눈 감고 절만 하면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제안은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반면에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너무나 크고 호화롭습니다. 힘겹게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거절하기 힘든 이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다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구원사역은 십자가의 길, 즉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인류를 죄와 사망권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유혹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 자신의 내면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가게 할 수는 없을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을 사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인간 안에 쉬운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쉬운 것을 좋아합니까?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한 인간이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유혹하면 흑하고 끌립니다. ‘무료’, ‘공짜’, ‘1+1’ 이런 것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을 하라고 유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이 되라고 유혹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쉽게 편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말씀중심으로 사명중심으로 그렇게 극성스럽게 사느냐고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돈도 벌고 여가도 즐기고 신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기도하고 투쟁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지 않고도 해박한 성경선생이 되어 양들을 공부해 줄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해산의 수고도 없이 양이 저절로 자라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쉽게,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쉽게 쉽게 살고자 하면,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결과를 얻고, 쉽게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의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쉽게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 올 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쉽게, 쉽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정도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김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둡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경배하다’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많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전처럼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엎드려 경배하고 했는데 고대 근동의 경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개는 충성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인을 위해 싸우기고 하고 주인을 구해 주기도 합니다. 강도와 싸운 개도 있습니다. 개는 죽어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 앞에서 배를 보이면서 엎드려 집니다. 완전히 자신을 보여주고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력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복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창조주 그분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개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들고 발광을 합니다. 주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궤를 모셔 드릴 때 왕의 체면이고 뒷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흐트러졌던 예배의 자세를 다시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11)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힘써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